國政指標
新韓國 創造
깨끗한 政府
튼튼한 經濟
건강한 社会
통일된 祖國

국정신문

1993년 4월29일
週刊 〈非賣品〉

發行人 吳隣煥 · 編輯人 李源宗 · 發行所 公報處 政府刊行物製作所 / 우편번호 110-021 서울鍾路區 付岩洞 182-1 / 전화(02) 730-1027, 1031 · FAX 730-1034

"司正바람…公職社會 동요될 필요없다"

公職者, 이제부터 떳떳하게 國家위해 일할 때

특별寄稿

黃寅性
〈국무총리〉

친애하는 공직자 여러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勞苦에 대해 깊은 敬意를 표함과 아울러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새 文民정부가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 출범한지 이제 겨우 2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짧은 기간동안에 우리주변에서 엄청난 變化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실감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부정부패 拔本塞源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體質化되다시피 한 不正腐敗 등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韓國病的 요인들이 하나씩 하나씩 퇴치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병은 그 病因이 발견되었을 때 곧바로 치유하지 않으면 증세만 악화될 뿐 회복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맙니다.

金泳三대통령께서 주창하신 新韓國 창조는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앓아온 韓國病을 하루 빨리 치유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나라, 국민 모두가 함께 발전하고 번영을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改革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改革과 司正의 목표는 新韓國 창조를 가로막는 모든 불합리한 요소를 찾아내서 제거함으로써 땀흘려 일하는 사람,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있습니다.

새 정부의 改革施策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찬사와 갈채를 받는 것도 바로 이때문입니다.

물론 改革에는 고통과 시련이 따를 것이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과 부작용을 忍耐로써 극복해야만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정부의 개혁시책이 어려워진 우리 經濟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소리가 항간에 나돌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司正바람에 공직사회가 동요되고 공직자들이 일손을 놓고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낡은 思考를 버리지 못했거나 아니면 과거 누렸던 特權에 연연해 하며 正義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없는 일부 인사들의 잘못된 생각일 뿐입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新韓國 창조의 隊列에 동참하기를 거부하거나 두려워 하는 사람은 歷史와 국민으로부터 끝내 외면당하고 말 것입니다.

無事安逸은 '내부의 敵'

더구나 아직도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직무를 기피하거나 無事安逸한 자세로 保身에 급급한 공직자들이 있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金泳三대통령께서 지적하신 '內部의 敵'일 수도 있다는 것을 공직자들은 인식해야 합니다.

친애하는 공직자 여러분.

정부는 자기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국민의 편에 서서 자기 직분을 곧고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많은 공직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주는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울타리입니다.

정부의 改革施策은 성실하고 정직한 공직자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정부의 改革과 司正活動이 聖域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도 없으며 더구나 지나치게 몸조심하여 소신껏 일하지 않는 자세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평소 한점도 부끄러움 없는 깨끗한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지켜온 공직자라면 이제부터가 떳떳하게 국가를 위해 自矜心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들은 지금 韓國病에 시달리고 있는 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하루 빨리 밝고 깨끗한 新韓國을 건설해내자는 강한 의욕에 불타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비스株式會社'

新韓國 창조를 위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난날 언제 이렇듯 국민의 뜻이 한곳으로 모아진 적이 있었습니까.

모든 공직자들은 우리 역사상 처음 맞는 이번 기회를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깊이 생각하고 모처럼 일기 시작한 국민의 욕구와 熱氣에 불을 당겨주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국민들을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공직자들이 먼저 수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곧 '윗물맑기운동'입니다. 공직자들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짊어져야 합니다.

정부가 스스로 예산을 줄이고 공무원봉급을 동결한 것도 다 이런 깊은 뜻에서 취해진 어려운 결단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 지금 흘리는 눈물과 땀은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들에게 기쁨과 웃음이 되어 되돌아올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나는 국무총리로 취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부는 국민들에게 滿足과 幸福을 드리는 '서비스 株式會社'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공직자의 본분은 국가와 국민에게 奉仕하는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깨끗한 정부에서 일하고 있다는 自負心을 가지고 어느 때보다도 의연한 자세로 주어진 직무수행에 熱과 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다시한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榮進과 健康이 함께 하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청와대의 봄 문민정부시대를 맞아 활짝 열린 청와대의 올 봄은 유난히 밝고 화사하다. 개방된 청와대 앞 꽃길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상춘객들로 연일 붐비고 있다. 〈裵權瀅〉

改革, 성실·정직한 사람 대우받는 社会건설 위한 것

(1989年5月11日 第3種 郵便物 (가)급 認可)

物價안정으로 新경제 뒷받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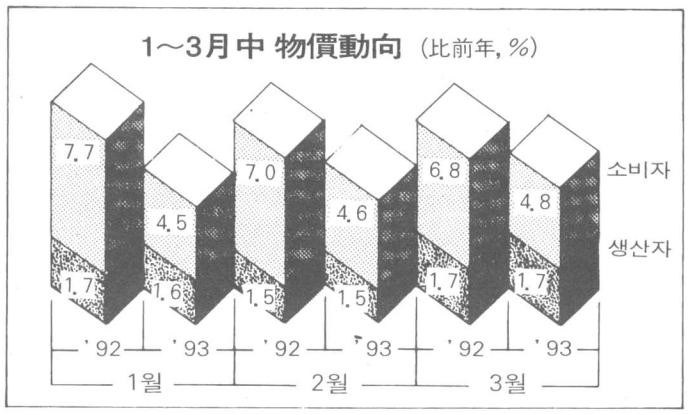
生必品가격 특별관리 근로자 生計 안정시켜

지난 3월 22일부터 정부는 '新경제 100일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3월까지 물가가 작년보다 다소 더 오른데다가 '100일 계획'에 따른 景氣 활성화 조치로 通貨가 많이 풀려 나가면 혹시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의 物價安定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단호하고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협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물가안정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최근 물가동향을 살펴보면 3월까지 소비자물가는 2.7%, 생산자 물가는 1.0% 각각 상승하여 작년 같은 기간동안의 2.4% 및 0.9%보다 다소 높게 상승하였다.



週間 擴大鏡

올 消費者물가 4~5%線서 안정세 유지
工産品값 동결등 物價안정 분위기 확산

이것은 醫療保險酬價 등 일부 공공요금을 예년보다 앞당겨 조정하였고 작년 가을에 가격이 크게 하락한 과일·채소 등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회복되는 등 작년에 없던 요인에 따른 것으로서 이미 예상했던 결과이다.

앞으로의 물가여건을 보면 작년에 豊作으로 가격이 하락하였던 농축수산물이 상당폭 반등할 가능성이 있으며, 원목 등 일부 輸入원자재와 환율의 상승이 물가에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 心理 진정세

반면에 금년중 임금안정과 두차례의 금리인하로 제품의 원가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不動産가격이 안정되어 인플레心理의 진정세도 지속될 것이다.

또한 '100일 계획'에 의한 경기활성화 조치도 설비투자 등 생산적인 부문에 자금지원을 집중하고 지난해 이후 총수요의 安定勢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물가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여건을 종합해 볼 때 일부 해외요인 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 특별담화이후 전국민의 고통분담에의 동참과 物價安定의 협조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물가여건은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여건을 활용하면서 정부는 物價安定對策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新경제'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물가안정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난 4월9일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물가안정시책 방향을 수립한 바 있다.

通貨, 13~17%線 유지

먼저 통화는 연간13~17% 증가 수준에서 적정하게 공급하고 財政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총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임금안정과 부동산가격의 안정세가 지속되도록 함으로써 費用要因도 완화해 나갈 것이다.

농축수산물 등 부문별 수급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需給不安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유통구조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流通費用을 절감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물가안정대책의 추진과 함께 특히 근로자의 生計安定과 임금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본생필품으로 선정한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간 평균1% 수준에서 안정시킬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生必品인 쌀값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수매한 92년산 쌀을 작년과 같은 가격으로 제한없이 방출하고, 쇠고기·돼지고기는 부족량을 수입해서라도 공급할 것이다.

라면 런닝셔츠 가루비누 설탕 등 工産品은 업계 스스로가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으므로 이러한 자발적인 노력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도 稅制 등을 통해서 지원할 것이다.

부당편승引上 철저 단속

이밖에 전기료 상수도료 시내버스요금 및 진찰료는 금년중 올리지 않고, 전화요금에 대해서는 市外 30㎞까지와 인접 통화권 지역의 시외요금을 7월1일부터 시내요금 수준으로 대폭 인하할 계획이다.

개인서비스요금은 스스로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지도를 펴는 한편 부당한 편승인상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물가대책을 통하여 금년도 소비자物價는 당초 목표대로 4~5%, 생산자物價는 2~3% 수준에서 안정시키고, 특별관리키로 한 20개의 기본生必品 가격은 향후 1년간 평균 1%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汎政府的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과 함께 무엇보다도 기업, 근로자, 소비자 등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물가안정을 이룰 수 있으므로 각 經濟主體의 자발적이고도 실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金 善 玉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장〉

국무회의 〈22일〉

사건·사고 事前예방에 철저 당부

部處別 개혁과제 추진상황 報告계획 마련

지난 22일 黃寅性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93년도 제20회 국무회의에서는 국방부가 상정한 '故 李元淳선생 국립묘지안장(案)' 등 일반안건 2건을 의결하고 법제처로부터 93년도 정부입법계획안을 보고 받았다.

의 결 안 건

◆一般案件(2건)

국방부 △故 李元淳先生 국립묘지안장(案)

총무처 △榮譽수여(법률문화향상有功者 등)

총리 지시사항

◆중점개혁과제 보고계획관련

정부 각 부처의 중점개혁과제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協調·推進하기 위하여 국무회의에서의 부처별 추진상황 보고계획을 마련했음.

국무위원 여러분은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쇄신을 이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소관 분야별로 좀 더 폭넓고 깊이있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제161회 임시국회관련

국회의 부처별 업무현안보고와 대정부질의 답변 등에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자세로 임함으로써 각종 개혁정책의 목표와 방향이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사건·사고예방 및 공직기강확립 관련

최근 논산 정신병원의 화재사고, 무장군인 총기 난동사건, 전국 곳곳의 산불 등 빈번한 사건, 사고는 법과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국민의식과 관련공직자의 근무기강 해이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함.

앞으로 이같은 사건·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근본적으로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공직자와 국민의 의식을 확립해 나가야 하겠음. 각 부처별로 잠재된 사건·사고 발생요인을 면밀히 파악, 사전 대비책을 마련하고, 최일선 기관까지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독려해 나가야 하겠음.

주간 國政메모

재소자 技能자격 취득교육 강화 법무부

법무부는 28일 폐막된 '93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안양교도소를 비롯한 산하 28개 교정기관의 재소자와 원생 1백16명이 대거 입상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둠에 따라 이들의 사회생활 능력 및 기능자격 취득을 촉진키 위한 기술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각 文化院에 4천9백만원씩 지원 문체부

문화체육부는 27일 楊平·報恩문화원 등 12개 지방문화원을 93년도 시범문화원으로 지정하고 각 문화원마다 4천9백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범문화원은 이번에 지정된 12개를 포함해 모두 66개이다.

해외건설수주 1천억달러 돌파 건설부

건설부는 27일, 지난 65년11월 泰國의 파타나-나라티왓간 고속도로공사 수주로 시작된 우리나라 해외건설 총수주액이 1천억달러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산업안전보건업무 行政規制완화 노동부

노동부는 27일 산업안전보건업무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키 위해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완화조치를 악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주 구속, 합동조사반 투입, 명단공개 등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資源절약 생활화… 經濟회생에 一助

새바람 새물결 〈3〉

資源재활용

알뜰한 家計운영 등 건전消費生活기풍 확산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資源."

사회전반에 경제회생을 위한 고통분담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생활 저변에서부터 資源재활용 및 근검절약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지난 1월 재활용품교환센터를 常設 개장한 서울 良川區廳의 경우 3월말 현재 이곳을 다녀간 주민은 3천여명에 家電제품 6백32건, 도서·완구류 1백93건, 의류 3백54건, 기타 1천5건 등 총 2천1백84건, 1천4백10만원 상당의 물물거래가 이루어졌다.

良川區廳 뿐만 아니라 區단위별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매월 또는 分期別로 일정장소서 운영되고 있는 '시민알뜰장'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27일 오전10시.

서울 中區소재 장충단공원내에서는 中區廳서 마련한 시민알뜰장터가 펼쳐져 이곳을 찾은 지역주민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다.

가정에서 사용하던 의류 가전제품 도서 완구 가구류 등 버리기엔 아까운 각종 中古생활용품들이 쏟아져 나와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물품절약 차원을 넘어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유통시킴으로써 유휴물품의 재활용을 통한 근검절약의 생활화를 위한 것이다.

이것은 또한 자칫 폐품으로 버리기 쉬운 것을 資源化함으로써 환경보전 의식고취 및 이웃과 더불어 사용한다는 인식을 통한 共同體의식증진 등의 效果도 갖고 있다.

국민들의 資源절약 정신 및 物資재활용운동은 YMCA나 YWCA 등과 같은 시민단체의 각종 行事에서도 엿볼 수 있다.

◇27일 서울 中區廳 주관으로 장충단공원에서 열린 시민알뜰장은 지역주민들이 쇄도, 성황을 이뤘다.

YWCA의 경우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YMCA에서도 '소비자 한마당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같은 시민운동들은 이제는 아파트단지를 비롯해 직장 학교 종교단체에까지 확산, 건전소비생활 기풍 정착에 크게 一助하고 있다.

최근 '교차로' '벼룩시장' 등 각종 生活情報紙나 TV프로그램을 통한 中古品매매 등도 활기를 띠고 있어 국민들의 家計운영이 알뜰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자원재생공사 朴商承씨(홍보과 홍보담당)는 "국민들이 과거보다 實用性과 경제성을 먼저 생각하며 물품을 구입하는 등 구매패턴이 바뀌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하면서 "재활용품을 통한 資源절약효과가 날로 신장되고 있어 정부의 經濟回生 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洪永模〉

新韓國人 〈7〉

박봉 샐러리맨 獎學사업 19년

장학회 설립…불우청소년 自立의 길 열어

대림산업 강변도시고속도로현장소장 朴武雄씨

한 평범한 회사원이 자신의 박봉을 쪼개 19년간 사랑의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그는 대림산업 강변도시고속도로 현장소장 朴武雄씨(51).

朴씨는 지난 75년부터 지금까지 65명의 소년·소녀가장과 불우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 자립의 길을 열어준 '고마운 아저씨'다.

"가난때문에 배움의 길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지난 68년 서울市立農大(現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할 때까지 朴씨는 신문배달 가정교사 공사판 잡역부 등 안해본 일이 거의 없었다.

대학 4년동안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밤을 낮삼아 일하던 朴씨는 자신보다 훨씬 어린 학생들이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고생하는 것을 보고 이들을 돕기로 결심했다.

졸업하던 해 서울市 공무원이 된 그는 75년 중학생 2명과 국민학생 1명의 학비를 부담하면서 사랑베풀기를 시작했다.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장학금은 봉급에서 떼낼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한번도 안하던 부부싸움까지도 벌이게 됐다고.

80년 직장을 대림산업으로 옮긴 그는 더 많은 학생들을 돕기 위해 '돌감자 장학회'를 만들었다.

朴씨는 또 이들에 대한 경제적 도움외에도 부모없는 아이들의 아버지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지난 91년 어느날 자신이 장학금을 주고 있는 고등학생 金모군이 친구들과 승용차 절도범으로 濟州경찰에 붙들려 있다는 연락이 왔다.

바빠서 못가는 그를 대신해 첫 비행기로 날아간 아내 南貞伊씨(47)의 눈물어린 호소로 풀려난 그 학생은 南씨의 정성에 감동, 마음을 고쳐 먹고 光州직업훈련원에 입소해 현재는 열심히 기술을 배우며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동안 朴씨의 도움으로 학업을 마친 직장인은 6명, 대학생은 8명이다.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도 2명이나 된다.

이제는 그들이 과거 朴씨로부터 받았던 도움을 되돌리기 위해 매월 1~2만원씩을 장학회에 보내오고 있다.

"우리 주위에는 도움이 필요한 소년·소녀가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이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일 때입니다."

요즘도 주말이면 朴씨는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불우한 청소년들을 찾아 나선다.

소외된 곳에서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는 불우한 청소년들을 묵묵히 돌보는 朴씨야말로 오늘의 우리가 본받아야 할 新韓國人의 전형이었다.

〈崔成演〉

家計性보험 實査없이 보험금 지급

손해액 2백만원이하 전화신고만으로 가능

경제메모

내달부터 주택화재 유아교육 가정생활보험 등 가계성보험 가입자가 2백만원 이하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간단한 전화신고만으로 현장조사없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사고통지후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지급을 지연할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대한 이자를, 현행 정기예금이자율(8.5%)보다 높은 보험회사의 대출금이자율(연11.5%)로 계산해 받을 수 있다.

이는 재무부가 27일 보험회사들의 內規를 고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간이손해사정제도'(실사를 하지 않고 보험금을 내주는 제도)와 '전화손해사정제도'(전화로 사고내용을 접수, 보험금을 온라인으로 송금해주는 제도)의 대상과 범위가 종전보다 대폭 늘어나 보험가입자의 불편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집단화재·풍수해·피해자 10인이상의 상해사고 등 대형사고의 경우에도 가지급보험금의 2분의 1을 현장에서 즉시 지급하도록 제도화했다.

잠수로보트 등 地球村 첨단名物 한자리에

1백36개 국가 및 국제기구 참가 프로그램

大田 D-100 EXPO'93

地球村가족의 축제한마당이 될 大田엑스포'93이 29일로 D-100일에 돌입했다.

지난 27일 현재 93%의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는 박람회장 건설현장은 5월까지 공사를 마무리짓고 6월에 시설물·전시물 설치가 완료되면 8월7일 그 역사적인 개막식을 갖는다.

'새로운 도약에의 길'이란 주제로 열리는 大田엑스포'93은 이미 EC회원국을 비롯해 日本 獨逸 캐나다 등 세계1백13개 나라와 23개 국제기구가 참가의사를 밝혀와 엑스포사상 최대규모를 자랑하게 된다.

첨단과학기술 분야는 물론 환경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지구촌의 면모가 아낌없이 펼쳐질 大田엑스포 현장을 미리 가본다.

◇'93 大田엑스포 개막을 100일 앞두고 행사 마스코트인 꿈돌이가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첨단과학·산업기술

독 일 △고속전철(ICE) 기관차 조종석

△관람객 작동가능 에어버스 모형

△관람객 작동가능 레이저 이용 용접로보트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소개 디지탈 백과사전

△방문 관람객이 직접 서명하는 전자방문록

러시아 △우주탐험의 과학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실물모형의 우주정거장 '미르'

△세계 해양 탐구를 위한 잠수로보트 항해 시스템

캐나다 △관람객들이 움직이면서 모험을 즐길 수 있는 90석규모의 이동극장(Moving Theatre)

△4개 小주제별(통신·에너지·교통기술, 가상현실 레크레이션 활동)로 캐나다를 소개 하는 관람객 작동 가능 모델 및 실물모형 전시

일 본 △온도변화에 따라 컴퓨터로 작동되는 동백꽃 화원

△도자기 제조 로보트

△미래기술에 대한 멀티미디어쇼(Multi-Media Show)

중 국 △귀환 위성 착륙 캡슐 및 모형 로켓발사 시범

환 경

영 국 △환경에 대한 범세계적인 이해증진을 위해 '퀄리티(Quality)'라는 7분짜리 환경연구 영상물 상영

프랑스 △지구자원 보호와 도시공해 감소대책을 제시하는 영상물 상영

독 일 △환경보존을 위한 자원 리싸이클링 기계

스위스 △스위스 예술가 찰스모건의 '리사이클리엄'이라는 조각품

△깨지기 쉬우나 적응력이 있는 자연생태계를 상징하는 '거미집'

오스트리아 △환경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환경극장

캐나다 △'통제된 환경' 표제하의 프리쇼

인 도 △환경에 무해한 전통섬유 및 전통공예품

△리싸이클링 제품

문화·예술

스위스 △세계적인 교육의 상징 페스탈로찌 모형 전시

오스트리아 △관람객이 직접 연주하면서 유명피아니스트 콘서트를 감상하는 컴퓨터 그랜드피아노 전시

△비엔나 필하모니 오페라를 감상하는 ARG 첨단 이어폰

뉴질랜드 △뉴질랜드 현대 미술품 및 원주민의 골동품 전시

중 국 △전통문화재인 문방사우(붓, 먹, 벼루, 종이)

체 코 △왕위 예식 예물 및 왕족 족보

△六分儀 원품, 해시계원품

△모짜르트(Mozart) 작곡 '돈죠반니' 가극 초연 조판

불가리아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金 가공품인 바르나 황금 보물

△9세기에 발명, 3백만명 이상이 사용한 기릴·글라고딕문자를 전시

바티칸교황청 △바티칸 천문대 모형과 초기방송설비

△레오나르도다빈치 등의 과학기술유품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의 회화 예술품

기 타

호 주 △관람자가 모니터上의 영상안내인의 도움을 받아 시청각 자료를 감상할 수 있도록 6초당 1m 속도로 움직이는 관람용 이동步道(Moving Walkway) 1백미터를 설치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어려운 스키 하강코스를 관람객이 직접 시승해 볼 수 있는 스키시뮬레이터

△알프스산맥의 3백60도 파노라마 경치 관람 시설

러시아 △크리스탈의 모형 내부소개

캐나다 △거울 환영속에 펼쳐지는 4계절

중 국 △매혹적인 中國의 자연경관과 풍속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씨클로라마 영화관(360°원형극장)

태 국 △입장관람객에게 인사하는 태국고대거인동상 2인

△태국산 우수난초 정원 및 해양동물 수족관 전시

체 코 △15~20세기까지의 역사유물, 문화유품, 과학발명품등을 시대별 카테고리별로 전시

△전시관 바닥 안전유리 밑에 드라이플라워(Dry-Flower) 이끼 등 각종 약용식물을 포함하여 역사 및 생활양식을 소개하는 역사속의 무덤, 마을의 모형, 도자기 등의 각종 유물, 실물전시품들을 특수 연출효과를 이용 전시

〈具校永〉

오스트리아 '디지틀백과사전' **스위스 자연생태계 상징 '거미집'**

러 시 아 우주정거장 '미르' **캐나다 90席 규모 '이동劇場'**

신임 市·道 지사에 듣는다 ③

전남

高附加價値농산물 생산 등 '3農정책' 추진

올해는 국가적으로 32년만의 새 文民政府 출범과 함께 '新韓國 창조'를 향한 元年으로서, 지역적으로는 활기찬 새 全南 건설의 희망을 갖게 하는 해이다.

이에 맞추어 道政의 중점을 ▲신한국 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의 새시대에 적극 동참하는 희망찬 지역분위기를 창출하고 ▲農·漁村과 도시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新産業地帶의 조성을 촉진하는 한편 ▲도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사랑의 共同體 社會 건설에 두고 ①깨끗한 道政 ②건강한 社會 ③잘사는 地域의 도정방침아래 3백만이 한마음으로 희망찬 새全南 건설에 총매진해 나갈 것이다.

李鈞範 〈전남도지사〉

특히 부정부패의 척결이 신한국 창조를 위한 제1의 先決課題임을 인식하고 과감한 自己革新으로 봉사와 능률을 극대화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겠으며 새 정부의 國政課題를 지방차원에서 착실히 실천하면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시뛰는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겠다.

全南은 농수산도시로서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활기찬 농어촌 건설이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高附加價値農業 商業農 輸出農 등 농업생산의 고도화를 위한 '3農정책'과 함께, 어민에게 활력을 주는 '重漁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한편, '지역복지는 지방정부가 책임진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확립하여 도민의 생활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행정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 또한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국토균형개발차원에서 西南圈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발전추세를 수용하기 위해 木浦圈 光陽灣圈 光州大都市圈 등 3大圈을 거점으로 한 '3核3軸' 구조의 균형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언론인과의 対話

사회간접자본 擴充에 言論이 함께 노력해주길

李啓謚 〈교통부 장관〉

교통문제가 어렵다 해도 국가가 정책의지를 실어 이 점만 해결하려 들면 안풀릴 리 만무하다.

교통의 어려움 하나만 바싹 들여다 보는 분들은 해결책이 뻔히 있는데 정부가 머뭇거리고 있다고 질책하기도 한다.

교통부는 국가의 교통정책을 책임맡은 곳이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누구보다도 더 강력하고 집요하게 펴붓고 있다.

가정이긴 하지만 국가가 오직 교통문제 하나만을 당장 풀어야 할 초미의 과제라고 판단하고 예산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면 상당히 빠른 시일 안에 시설면에서 선진국 수준에 못지 않은 실적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할 수는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 정책간의 균형, 재정지원의 한계 등을 놓고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

자동차생산 회사의 연간 생산규모가 1백만대는 돼야 지금 막 물이 오른 자동차의 세계 수출시장 경쟁력이 생긴다는 판에, 국내 승용차 보급 추세에 브레이크를 걸 수도 없다는 점이 정책균형을 생각해야 할 단적인 예이다.

지금 국내에 5백50만대 가까운 차가 굴러 다니고 있다.

97년쯤 1천만대가 넘을 것이고 2005년엔가 2천만대가 된다는 전망이다.

차때문에 길이 막혀 대중교통수단이 위축되고 있다.

승용차 보급대수의 증가와 비례하여 도시교통은 오히려 악화돼 간다.

해결책은 두 가지다.

지하철같은 수송효율이 높은 시설을 서둘러 갖추면서 늘어나는 국민의 의식에 변화를 유도하는 일이다.

정부는 지하철을 비롯한 국민의 대중교통시설 투자를 집중적으로 강화하여 미래의 쾌적한 교통환경여건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예산 조달의 여의치 못함, 노선 결정 등에 따르는 민원해결, 보상문제 같은 어려움을 푸는데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1993년을 10년 뒤인 2003년에 가서 뒤돌아다 본다고 가정할 때 과연 무엇을 잘 했고 어떤 것을 잘못했다고 평가하게 될까를 가끔 생각해 본다.

10년전 80년대 내내 경제가 괜찮았을 동안 우리는 지하철 건설에 손을 놓고 있었다.

그 여파로 지금 난제가 산적돼 있다.

지금 이 봄에 씨뿌리기를 게을리하면 10년 뒤인 가을에 거둘 열매가 없을 건 뻔하다.

사회간접자본이라는 이름의 국가기간시설은 당장의 부담과 고통이 싫다고 해서 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선진국으로 들어서느냐, 후진국으로 밀려나느냐의 판가름은 사회간접시설 투자를 어느만큼 잘 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교통부를 때려도 좋다.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가능하게 되는 쪽으로 몰아주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다.

여론광장

■ 投稿를 기다립니다

國政에 관한 제언 또는 주장 등을 원고지 3매내외로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분들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공문서 A4用紙 대신 16절지로 바꿔쓰자

몇년전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각종 공문서의 종이규격이 16절(19.5×27㎝)에서 A4(21×29.7㎝)용지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다.

처음에는 무관심하게 넘겼으나 날이 갈수록 종이 소비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크나큰 국가적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 이와 같은 글을 쓰게 되었다.

예를 들어 보자.

70g 모조지 1연(전지 5백매)을 재단하면 A4지의 경우 5천5백매가 나오고, 16절로 자르면 8천매가 나온다.

다시 말해서 16절용지로 사용하면 A4용지보다 1연당 2천5백매를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를 소매값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A4용지의 경우는 16절용지에 비해 종이 1연당 약8천원의 금액이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물론 16절 규격을 사용하다가 A4용지로 전환한 계기야 나름대로 있겠지만 가능한 한 16절 용지를 사용하여 엄청난 자원절약 효과를 거뒀으면 하는 바램인 것이다.

이밖에도 전지크기의 종이를 재단하다 보면 2절, 4절, 8절, 16절 등은 내버리는 부분이 없다.

그러나 A4용지는 많은 부분이 잘려 나가는 2중의 손실효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원자재가 부족해 종이의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이런 문제는 작게 여기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한번쯤 시책에 반영한다면 엄청난 자원절약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안석룡 · 경기도 광명시 광명3동〉

남아도는 감자 農民시름…감자소비운동 온국민 노력해야

강원도는 총면적의 70%가량이 山地인 관계로 主작물인 감자가 산간고냉지 농민의 주요소득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유감스럽게도 사상유례없는 풍작으로 감자값이 폭락하는 바람에 재배 농민들이 깊은 시름에 잠겨있다.

지난해 20㎏들이 한상자에 1만2천5백원했던 감자가 올해는 이보다 훨씬 낮은 값인 5천원씩에 거래되고 있으며 그나마도 거래가 뜸해 엄청난 양의 감자가 창고에서 썩고 있다.

게다가 제주산 햇감자가 올라오고 냉동감자가 수입되면서 강원산 감자는 판매부진으로 가격이 계속 하락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 생산된 감자 24만7천t 가운데 1만6천t이 올초까지 팔리지 않은 채 남아돌고 있다. 다행스러운 일은 강원도의 농민을 돕기 위해 각계에서 강원감자 한알더먹기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그나마 한숨을 덜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올해 농민들이 지난해보다 재배면적이 11% 늘어난 9천ha에 감자를 심겠다는 최근의 조사결과다.

또한차례 큰 감자파동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강원도의 무공해 천연 토산식품인 감자를 애용해 건강도 지키고 농민의 보호에도 다같이 앞장서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신경은 ·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罰科金 중과등 과감한 교통정책 추진기대

범국민 교통사고줄이기운동 5개년계획이 추진된 92년말 현재 전년도 대비 사상자가 획기적으로 감소되었다고 하나 추월과속 신호무시 과적 등의 한국형 醜態는 좀처럼 바로 잡혀지지 않고 있다.

啓導만으로 교통문제를 바로잡으려는 발상은 효과면에서는 百年河淸과 다름없다.

우리의 교통문화는 이미 헤어나기 힘겨운 수렁에 빠져있기에 새로운 결단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罰科金을 重課하여 모든 사회질서를 바로잡고 있는 싱가폴의 발전적인 제도를 타산지석으로 삼지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보다 과감한 교통정책을 서둘러 펴 주기를 갈망한다.

〈전석창 · 강원도 인제군 용대국민학교장〉

國政중계실

사회복지전화제도 거택보호자 6월부터 架設費등 면제

문 의료보호 1급거택보호자이다. 체신부에서 올해안에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전화가설비를 면제해 주고 전화요금도 어느 정도까지는 감면해 주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는가.

〈신진섭 · 안양시 안양6동〉

답 체신부는 80년대 들어 이룩한 통신발전혜택을 사회 ·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복지전화제도'를 새롭게 만들어 93년 6월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 제도로 혜택을 받게 되는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거택보호대상자이며 이들에게는 알려진 바와 같이 가설비와 기본료를 면제해 주고 통화료도 어느 정도까지는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해줄 예정이다.

또 이미 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거택보호대상자는 일정한 수속을 밟아 설비비를 되돌려줄 방침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과 절차 등 여러 자세한 사항은 지금 담당부서에서 마련하고 있는 중이며 확정되는대로 TV나 신문을 통해 널리 알리고 지역 전화국에서도 이용자에게 자세하게 알려줄 것이다.

〈체신부 통신업무과〉

"量的으로 크게 발전한 「관광韓國」 대견"

觀光산업, 확실한 輸出전략 業種으로 육성하고 싶어

지난 3월18일자로 지역교통국장에서 관광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남다른 감회를 느꼈다.

그것은 내가 13년전에 관광진흥과장으로 일하면서 관광에 관한 업무를 직접 맡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양적으로 크게 발전한 우리 관광의 모습을 보는 대견함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근들어 외래관광객이 크게 감소하고 있고 관광에 대한 예전의 국가적인 지원과 관심이 퇴조함에 따라 침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관광의 처지를 접하면서 관광정책의 실무책임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점점 악화되고 있는 여행수지 적자, 줄어들고 있는 외래관광객, 턱없이 부족한 관광시설과 투자재원, 관광산업을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 등 해결할 과제들이 산적한 실정이다.

그러나 천만다행히도 지난 3월27일 우리 부의 업무보고시 대통령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주기로 한 것이다.

즉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광진흥대책을 추진하여 여행수지 흑자를 달성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든든한 배경을 바탕으로 수일동안 관광국 직원과 산하기관 업계 등과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관광산업 진흥종합대책'을 관계부처 등을 찾아다니며 설명도 하고 관계자회의도 개최하는, 말 그대로 관광을 세일즈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무척 아쉽고 한시바삐 우리가 탈피해야 할 점이라고 느낀 점은 많은 사람이 아직도 관광을 단순히 소비위락적인 산업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국가경제 차원에서 볼 때 관광으로 벌어들이는 외화수입은 한 나라 경제발전을 위한 주요한 투자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우리의 경우 60~70년대에는 관광수입이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주요한 밑거름이 되었고 현재도 연간 33억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주요한 국가산업이다.

이 액수는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인 자동차 수출액보다 많은 금액이며, 전문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외화가득률이 제조업보다 월등이 높은 무공해 수출산업인 것이다.

대외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장벽이 없는 관광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수출전략업종이라고 확신한다.

따라서 우리 모두 관광에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관광산업 진흥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 불합리한 세제 및 여신구조, 관광호텔의 부대시설에 대한 영업범위 제한 등의 각종 규제완화조치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부계층의 무분별한 여행 행태로 관광산업이 과소비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국민들의 협조 또한 크게 요구된다.

'新韓國 창조와 신경제'를 위한 도도한 물결과 함께 '신관광으로의 재도약'을 위한 관계기관과 일반 국민들의 성원을 크게 기대해 본다.

공무餘話

李 且 煥
〈교통부 관광국장〉

野黨전당대회·대통령 4·19참배 모습담아

대한뉴스가 달라지고 있다

영화관을 찾는 국민들과 나누는 '6분간의 對話'인 대한뉴스가 文民정부 출범과 함께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뉴스는 한때 대통령의 동정만을 집중적으로 소개해 '대통령뉴스'라는 별명까지도 붙었었다.

그러나 얼마전 1949호에서는 대한뉴스 사상 처음으로 野黨인 민주당의 전당대회 모습을 객관적으로 소개했다.

물론 가장 먼저 반응이 온 곳은 민주당이었지만 어쨌든 감사전화와 필름복사요청 등을 받고보니 우리 대한뉴스제작팀은 역사를 정직하게 기록하는 본연의 자리를 되찾고 있다는 뿌듯함을 느꼈다.

또한 4월 셋째주에 상영된 대한뉴스 1954호에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4·19묘역에 참배, 헌화한 金泳三대통령의 모습, 李基澤민주당 대표 및 최고의원들의 참배모습과 범정부주관으로 거행된 4·19 서른세돌 기념식을 1968년 이후 실로 25년만에 대한뉴스에서 처음으로 보도했다.

그리고 각 텔레비전에서 분명한 제공처를 밝히지 않고 활용해온 4·19 그날 현장의 생생한 화면을 대한뉴스가 5·16 이후 32년만에 처음으로 직접 공개, 그간 방송국 보도자료로 알고 있던 일반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그때 뉴스 취재팀이 기록하여 보존한 자료임을 밝히기도 했다.

대한뉴스는 눈에 띄게 달라져가고 있다.

이를 계기로 우리 대한뉴스 제작팀은 정말로 우리역사의 생생한 자취를 필름에 기록하여 영구보존하는 소임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직한 소리와 유익한 생활정보를 전달하는 대한뉴스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대한뉴스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어떠한 곳이든 달려가겠다.

정직한 소리·유익한 生活情報 생생히 전달 다짐

尹 星 記 〈공보처 국립영화제작소 제작1과장〉

제41기 경찰간부후보생 졸업식서

榮譽의 대통령상 受賞

話題

◆ 丘在成씨(30)

지난 23일 경찰종합학교 제41기 경찰간부후보생 졸업

"국민에 신뢰받는 경찰로 최선다할터"

식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받은 丘在成경위(30)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丘경위는 전경복무기간중 경찰이 사회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계기가 돼 경찰종합학교에 입교했었다고 말했다.

丘경위는 지난 87년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가족으로는 지난해 결혼한 부인 徐美惠씨(31)가 있고 취미는 바둑.

清白吏 列傳 〈3〉

비새는 초가집서 살며 善政베푼 정승

柳 寬

柳寬은 고려말에서 조선조 4代王인 세종때까지 관찰사 판서 우의정 등을 지내며 88년의 생애를 오직 淸白으로 일관한 분이다.

재직중의 善政도 선정이지만 옷은 몸을 가리는 것으로, 음식은 위를 채우는 것만으로 족하다는 청빈사상을 몸소 실천했다.

儉朴한 생활속에서도 남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집안 형편은 늘 어려웠다.

사는 곳은 동대문 밖으로 당시로서는 농촌이었다. 집은 두어 칸짜리 낡은 초가에 담장도 대문도 없었다.

장마가 한 달이상 계속 되는 해에는 방안에서도 우산을 받쳐야 할 처지였다. 부인이 판서의 체신을 생각, 집수리를 했으면 싶었으나 "이 장마비에 우산이 있는 우리는 얼마나 다행한가"라면서 우산 없는 백성들의 처지를 걱정하는 柳寬이었고 보니 달리 할 말이 없었다고 한다.

太宗임금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서는 그가 지방출장으로 집을 비운 사이에 궁중의 繕工監으로 하여금 집수리를 시켰다고 한다.

그는 출퇴근은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녔다.

집에 있을 때는 베옷과 짚신차림이었다. 또 손수 채마밭을 가꾸었다.

찾아온 손님 접대에는 탁주 몇 사발에 소금에 절인 콩안주가 전부였다.

비록 막걸리 한 사발이라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면 그것이 바로 참다운 대접이라는 것이다.

어릴적 친구가 찾아와 "정승이 어찌 이런 초가집에 살고 있는가"고 묻자 "벼슬자리는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인데 벼슬아치가 백성보다 호화롭게 산다면 그 벼슬은 백성이 아닌 나를 위한 벼슬이 아닌가"하고 되물었다는 것이다.

그 친구는 처음에는 정승 신분에 눌려 柳寬에게 높임말을 썼으나 "친구 사이에 그 말투가 뭔가"라는 柳寬의 우정 어린 나무람과 환대를 받고 감격했다고 한다.

柳寬의 부음이 전해졌을 때 세종대왕은 궁중연회를 중단, 홍례문 밖에서 상막을 치고 백관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사흘동안 政務 중단과 철시령이 내렸다.

그후 기록에 의하면 柳寬의 비 새던 초가는 임진왜란뒤 外4代孫 李希儉이 복원했고 그 아들인 芝峰類說의 저자 李睟光이 옛 일을 기리어 당호를 庇雨堂이라 짓고 代를 물려 살았다고 한다.〈津寬子〉

국내 첫 노동복지회관 초대관장

근로자 文化공간 운영의 선구자

이런 公務員

"노동복지행정을 맡았던 17개월이야말로 17년만큼이나 길고도 알찬 기간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부천시 지역행정과로 전보돼온 李淳仁계장(49)은 부천시 노동복지회관장으로 근무할 당시의 힘겹고도 보람찬 일들을 회상하며 지긋이 눈을 감는다.

당시 李관장의 헌신적인 公職자세는 동료는 물론 주윗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 돼왔고 또 감사원 감사때면 으레껏 그의 모범적인 공직수행에 감사원들은 경탄하기 일쑤였다.

李씨의 이같은 헌신적이고도 탁월한 공직수행자세가 감사당국에 인정, 지난해에는 노동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지난 70년 공직에 첫발을 내딛은 이래 올해로 공무원생활 24년째인 李씨는 91년 2월 富川 노동복지회관 건립때부터 1년5개월간 초대관장을 맡았다.

富川市 노동복지회관은 근로자들을 위해 지난 91년 6월 대통령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세워진 국내최초 근로자 문화공간.

"건물외엔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자를 위한 각종시설이며 자료를 준비하려니 아득했습니다."

그는 개관을 앞둔 4개월간은 정말 눈코뜰새 없이 바빴다.

밤에는 회관운영방안을 짜내느라고 잠을 설치기 일쑤였으며 또 날이 밝으면 풀통을 들고 사업장마다 찾아다니며 회관개관을 알리는 벽보를 붙였다.

李淳仁 〈부천시 지역교통계장〉

"개관초기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근로자들에게 회관을 알리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관이 근로자들의 예식장으로 대여되는 등 구체적인 혜택이 알려지면서 근로자들의 이용이 크게 늘어났다.

李씨는 이밖에도 회관내에 독서실을 설치했으며 서예 공예 자수 일본어 등 근로자들의 취미교양강좌도 개설하는 등 짜임새 있는 운영솜씨를 발휘했다.

그 결과 노동복지회관은 富川지역 근로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

특히 이곳은 현재까지 3백여쌍 이상이 결혼식을 올려 잉꼬부부탄생의 요람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주례를 못 구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았어요. 이들이 원하면 기꺼이 주례를 승낙했지요."

지금까지 李씨가 결혼식 주례를 서준 부부만도 32쌍.

그에게는 이 때문인지 '주례선생님'이란 별명도 생겨났다.

이처럼 富川노동복지회관이 1년6개월이란 짧은시간에 근로자들의 소중한 문화공간으로 정착되자 제주도·강원도 등지에서 조차 회관운영의 실태와 방법을 배워가기도 한다고.

지금은 자리가 바뀌어 교통문제를 맡고 있지만 근로자복지문제는 자신의 주된 관심사라고 말하는 李씨는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항상 성실한 모습으로 나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全宣珠〉

제주도등 他市道서 방문 会館운영방법 배우기도

公務員 소리

공무원의 大企業 연수 창의력 배양에 좋은 계기

신경용 〈전북 옥구군청 내무과〉

지난 7일부터 4일간 沃溝군청 6급이상 공무원 40명이 대우 인력개발원(용인)에서 연수를 받았다.

공무원 속성상 대기업에서 연수를 받는다는 것 자체를 처음부터 부담스럽게 생각했으나 행정이 기업을 이해하는 특별한 기회여서 기대이상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주민들이 보다 다양하고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요구함에 따라 전문화 고도화된 경영기법과, 국제적 안목, 민주화된 다양한 서비스문화를 선별도입해서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업연수의 목적이 있었던 것 같다.

대우의 기업정신은 창조 도전 희생정신으로 경영이념은 성취지향적 공존공영 그리고 미래지향적이었다.

기업의 존재는 기업주의 기업가 정신과 판매전략 그리고 사원들의 애사정신에 달려있다고 생각된다.

'마른 타월도 쥐어짜자'는 일본기업의 혁명적 구호와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는 日本 이즈모(出雲)市의 이와쿠니 데쓴도(岩國哲人) 市長의 서비스 정신을 답습해서 경영혁신과 고객중심의 관리혁명을 이룩하여 극심한 노사분규로 적자의 늪에서 도산위기에 직면하였던 대우조선을 '한가족운동'이라는 의식전환 운동으로 생산성을 높여 3년만에 흑자기업으로 전환시켰다는 소개에 감명을 받았다.

군정을 수행하는 우리 공무원도 주민에게 양질의 봉사를 다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혁신을 해야 한다.

또 조직의 활력과 신선함을 주는 창의적 사고와 합리적 운영 능력을 배양해서 자기개발에 힘쓰는 용기와 자신감을 얻어야겠다.

기업의 분위기를 혁신하고 건실한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서 남이 하기 싫은 일을 솔선해 보이며 노사간격을 좁히려는 임원 관리자의 화합정신이 현재의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게 한다.

공무원은 국가가 있는 한 평생직장으로 영속하지만 기업은 도전적 혁신으로 이윤을 남겨야 존재한다는 철학을 지키고 있다.

무사안일하고 고식적인 행정문화에 젖어있는 공무원에 일어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우리는 새로운 분위기에서 자기변화의 기회를 부여 받았다.

앞으로 조직내에 새로운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해 마지않는다.

잊혀지지않는 公務員

놓고온 '봉투' 郵便반송한 세무서 과장

병원을 경영하다 보면 관공서도 출입을 해야 되고 公務員도 자주 만나야 된다.

지금부터 거의 30년전의 일이지만 아직도 내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公務員 한분이 있다.

그땐 내자신이 오랜 외국유학생활을 마치고 막 귀국한 직후라서 생소하고 적응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던 시절이었다.

그가운데서도 특히 다른 분야보다도 더 엄격하고 까다로운 분야가 병원의 稅務行政이었다고 생각된다.

지금도 그렇지만 병원장이라고 해서 병원의 모든 행정업무를 다 챙겨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병원도 각기 분야별로 담당자가 있어서 일상적인 행정업무는 실무적으로 처리가 되고 마지막 단계에서 결재만 병원장이 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병원장이 결재란에 서명을 했지만 내용을 자세히 챙겨보지 못한 채 넘어가는 경우도 非一非再하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처럼 병원장이 행정책임을 지고 있으면서 환자진료도 해야 되는 이중역할을 담당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런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당시 병원에서 쓰는 X선 필름은 이중가격이 형성되어 외국으로부터 직수입해 올 경우 국내에서 구입할 때보다 약 40%정도 저렴했고 그 비율은 7대3정도로 직수입이 많은 편이었다.

그런데 담당자의 착오로 세무신고에서 그 비율을 정반대로 잘못 기록한 것이 당시 세무조사에서 적발되었던 적이 있었다.

그리하여 담당세무조사자가 병원장실로 찾아와 세무신고서에 최종서면을 했으니 허위신고의 책임을 지고 확인서를 쓰라는 것이었다.

나는 "결코 고의가 아니고 행정상의 착오니 좀 봐달라"고 사정을 해 봤으나 막무가내였다.

나는 마침내 관할세무서의 담당과장을 찾아가서 전후사정을 말하고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당시 관행화된 '봉투'를 놓고 나왔다.

몇일후 내게 등기우편이 송달되어 뜯어보니 일전에 찾아갔던 그 과장의 정중한 편지와 함께 그날 놓고온 봉투가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그때 나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자책감과 함께 세상에 이런 훌륭한 공무원도 있나하고 경탄을 금치 못했다.

물론 그 세무조사는 원만히 끝났지만 그때 그 과장의 청렴하고 孤高한 모습은 아직도 내 腦裡에 신선한 충격으로 잊혀지지 않고 있다.

그후 그분도 고위직까지 승진하여 명예롭게 정년퇴임하고 지금은 국내굴지의 기업에서 최고경영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때 그 일이 인연이 되어 지금도 交分을 갖고 있다.

韓斗鎭 〈대한병원협회 회장〉

TV 國政 라디오

※ 본 방송프로는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V

▲5월1일 오전6시 5분 KBS 1 농어촌 지금은 **許信行 농림수산부장관** '新農운동 등 농정시책'

라디오

▲5월1일 오전 8시 CBS 뉴스레이다 **金斗喜 법무부장관** '법의날을 중심으로 한 법무행정 현안'

지난주의 主要發表

외 무 부 중동 평화회의 재개에 즈음한 외무부 대변인 성명(27일)

내 무 부 민원 1회방문처리제도 시행으로 민원행정 일대개혁 (23일)

교 육 부 국립교육평가원 조직 및 운영상황 정밀진단 관련사항 발표 (26일)

농림수산부 제1회 농작물 병해충 발생 예찰정보 발표 (28일)

상공자원부 석유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정책세미나 개최 (23일)

건 설 부 토지이용계획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27일)

총 무 처 '93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시달 (24일)

다음주 行事메모

외 무 부 제2차 한·튀니지 문화공동위원회/튀니스 (5월1일)

내 무 부 市·郡·區 민원과장 시책교육/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30일)

법 무 부 제30회 법의날 기념식/세종문화회관 소강당(5월1일)

문화체육부 '93 전국 주요문화예술회관 책임자 회의/(30일)

농림수산부 신정부 농정의 방향과 과제/전국 농민회 (30일)

체 신 부 제주지역 신규무선호출사업자 서비스 개시 (5월1일)

과학기술처 제9차 한·불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프랑스 파리 (5월3일)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 (93.3.2 공포 및 시행)

새 法令해설

장애자공제대상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포함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여야 과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미만 거주한 경우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했다.

또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1993년 1월1일부터 종업원의 퇴직금준비금에서 종업원의 표준보수월액의 2%를 퇴직금전환금으로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고 당해 종업원의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에서 그 금액을 상계하도록 하고 있는데 과세시 이 퇴직금전환금을 퇴직금의 선급금으로 보도록 하여 이에 대해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할 때마다 과세하지 않고 향후 당해 종업원이 퇴직할 때 한꺼번에 퇴직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장애자공제(연 40만원)의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범위를 종전에는 본인·배우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외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로서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자도 포함하도록 했다.

〈법제처 공보관실〉

'孝' 세미나등 젊음의축제 한마당

문체부주관 한달간 7백16개 행사펼쳐

싱그러운 '청소년의 달' 5월을 맞아 문화체육부 주관으로 젊은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문화체육부가 마련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5월 한달간 전국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문화·체육 프로그램,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구발표, 모범청소년 및 지도자포상, 계몽·홍보사업, 불우청소년 격려·지원 등 7개분야 총7백16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부문별 사업내용으로는 문화·체육부문이 전체의 47%인 3백38개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격려·지원사업이 15%인 1백6개 그리고 포상과 홍보사업이 10%인 71개를 차지하고 있다.

◆ 5월 청소년의 달 주요 사업일정

행 사 명	일시	장 소
엄마와 함께 박물관을	1일	국립중앙박물관
광주 어린이 문화재 미술실기 대회	3일	광주박물관
어린이날 기념 특별국악공연	5일	국립국악원
청소년의 '효'에 관한 세미나	8일	세종문화회관
문화재 애호 백일장	8일	창경궁
청소년 대학로축제	8일	동숭동 대학로
'93 올림픽문화권 탐방	11일	서울올림픽파크텔
국립합창단 62회 정기공연	13일	국립중앙극장
청소년을 위한 덕수궁음악제	15일	덕수궁
근로 청소년 축제	15일	근로자종합복지관
청소년 예술 큰잔치	16일	올림픽공원
지방어린이문화재 미술실기대회	17일	전주, 청주, 진주 박물관
시와 시가곡의 무대	18일	배화여고
제4회 경기도 청소년상 및 청소년 육성 유공자 시상	19일	수원문화회관
청소년 나라사랑 대행진	23일	문산→임진각
청소년대상 창작무용발표	24일	국립국악원소극장
장한 청소년 생활수기 발표회	27일	전남화순군민회관
씨름대회	28일	남원광한루
전국청소년 탈춤경연대회	29일	서울놀이마당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팝 콘서트	29일	올림픽공원수변 무대

정부간행물

▲간행물명(판형·쪽수)/문의처(전화):내용順

경제기획원 ▲**중국의 시장경제화와 성과** (신국판·93쪽)/국민경제교육연구소:농업·기업·상품가격 등 3부분에 걸친 中國의 개혁·개방정책 및 성과를 수록.

상공부 ▲**'92 서울국제무역박람회 종합보고서** (4·6배판·251쪽)/대한무역진흥공사(551-4181):지난해 22개국 5백22개社가 참가한 서울국제무역박람회의 행사운영실태, 바이어유치활동, 국내외참가업체 현황, 참가업체의 반응 등에 관한 종합평가서.

▲**중남미 투자가이드** Ⅳ (4·6배판·189쪽)/대한무역진흥공사(551-4181):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하이티 자메이카 등 5개국의 외국인 투자정책을 비롯 투자여건, 투자관련 제도·법규 및 기관 등을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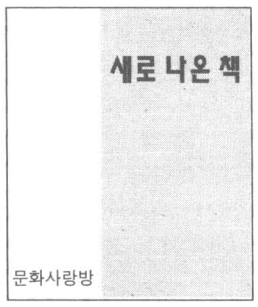
총무처 ▲**民間主導의 經濟社會秩序 確立方案** (4·6배판·222쪽)/한국행정연구원(564-2000):우리나라가 처한 경제·사회적 환경에 적절히 대처하고 선진복지국가 건설의 기초를 닦기 위한 정부규제 합리화방안 연구보고서.

정부규제의 변천과정, 현황 및 문제점, 개혁방안, 추진전략 등을 상세히 수록.

정무장관제2실 ▲**미래를 여는 여성** (4·6배판·24쪽)/제1조정관실(720-2464):새정부 출범이후 추진되고 있는 여성정책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한 홍보용 화보집.

법제처 ▲日本의 國會議員財産公開法 (4·6배판·20쪽)/한국법제연구원(722-0163):일본의 '국회의원 재산공개법' 입법배경과 주요내용 등을 수집, 조사.

교양도서자료집 '새로 나온 책' 발행



문화체육부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교양도서 자료집인 '새로나온 책'을 격주간으로 펴내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는 '책의해'를 맞아 국민들에게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범국민적으로 독서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책자에는 최근 납본된 도서 가운데 선정된 15~20종의 교양도서의 내용이 6백자 내외로 요약 소개돼 있다.

문화부는 매호 5백부를 발행, 문화가족과 관계기관에 무상배포할 예정이다.